

제4회 성장제일주의,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가

1. 문제제기
2. 경제성장의 한계 ①
경제성장이 인간의 부(富)를 보장할 수 있는가
3. 경제성장의 한계 ②
세계경제질서 내에서 경제성장을 목표로 매진하면 한국이 경제대국 될 수 있는가
4. 경제성장의 한계 ③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자유시장(이데올로기)의 장점, 세계화의 끝에는 무엇이 남는가
5. 인류의 전환이 필요하다
- 인간중심의 성장, 민인을 위한 경제제, 약속강식의 세계경제질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립적 경제체제를 고민하자



경제성장을 우리사회의 지상과제로 설정하여 달려온 198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정신적 기초를 이루아온 '경제성장제일주의'. 경제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살아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 속에서도 경제성장제일주의는 모든 논의의 기본가정으로 굳건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진은 웅산역 인근의 비닐천막 안에서 졸고 있는 홈리스.

한국은 절망을 향해 내달리고 있다

위기 왜곡, 전망 흐리는 '경제성장 제일주의' 재고 필요

우리는 TV나 신문과 등을 통해 "후진 테크놀로지" "정보와 시대" "디지털 기술로 펼쳐지는 새로운 세계"니 하는 기업이나 정부기관이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이미지 광고를 수도 없이 접한다.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찌됐든 그들이 말한대로, 우리는 새로운 눈부신 기술 발명품들로 가득찬 환상, 이클레멘트 화식마더 텔레비전 수상기가 달려있는 비행기리더가,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동안 컵을 보내주는 정보 고속도로 등과 같은 세계 속으로 들어와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그것은 위에서 열거한 과학기술의 혜택에 합입은 물질적 거품들이라기보다는 속박할 것같은 생존경쟁을 넘어선 안전한 생계수단과 일정 수준의 주거공간, 건강하고 오염되지 않은 음식,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훌륭한 교육조건과 깨끗하고 생생한 자연 환경 등이 아닌가. 하지만 그런 것들은 하루하루가 지난 때마다 우리들의 통제권을 벗어내고 있는 듯 하다.

실제로 미래가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 최대의 목표, 경제성장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펼쳐보자. IMF사태 이후 국민들의 대대적인 관심과 요구에 부응해 양적으리나 질적으리나 가장 눈에 띄게 부각된 '경제면'에서는 IMF와 OECD, 외국인 전문가, 정부기관, 사설 연구소 등에서 분석한 한국경제의 동태에 대한 분석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물론 성장률 마이너스 6.8% 전망, 성장률 을 하반기에 악화, 내년에는 실질적 고통해감, 한국경제 구조개혁 성공하면 내년 2.5%성장가능, 한국 경제성장 이사이서 인도네시아가 제외 회의를 들이 주를 이룬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금의 이렇게 어렵지만 IMF가 요구하는 것을 충실히 수행하여 대외신인도를 높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면서 수출을 증대시키면 내년엔 2.5%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2000~2003년경이면 5~6%의 건설한 성장세를 유지한다 2003년 이후엔 국제통화기금 사대 이전인 6~7%고 성장률을 회복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의심없이 그 내용을 수긍한다.

60년대 박정희의 군사독재정권의 국가동원 경제개발사업에도, 김영삼의 세계화 캠페인시절에도, IMF사태를 맞은 현재의 경제위기 국면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경제성장'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긍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말에 세뇌되고 있는 것인가? 위의 분석대로, 경제만 성장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가? 계속 경제가 성장한다면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인가?

그렇게 하리다 즐라매고 열심히 일해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내었던 지금의 위기는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 계속 경제가 성장한다면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인가?

이러한 약속강식의 세계경제질서 속에서 경제성장을 목표로 매진하면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이 될 수 있는가? 정부, 재벌, 언론이 새로운 질서에 적응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세계경제질서, 즉 경제 세계화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남을 것인가?

진실을 왜곡하는 경제이데올로기

'빈곤의 세계화'의 저자 미셸 초스토프스키는 80년대 초부터 주류경제이데올로기의 담론이 전제화의 학제와

연구기관에 강력하게 뿌리내리면서 비판적 분석이 두드러지게 그 힘을 잃었다고 말한다. 또한 대학들의 주변 기능은 세계 시장경제의 사회적 기초를 분석 또는 규명해낼 능력이 없는, 고졸화한 신화할 수 없는 경제학자를 배출하는 것이 되었다고 한다.

우리가 주목하려는 '경제성장 제일주의'은 그가 말하는 주류경제이데올로기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 교수로 역임한 데이비드 C. 로빈슨의 분석에 주목해보자.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자유시장 이데올로기가 신봉하는 다음과 같은 신념들은 한 시대의 경제 담화에 쓰이는 언어에 친숙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익숙하다.

「국민총생산에 의해 측정되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인간의 진보로 이어지는 길이다」

「정부의 규제가 철폐된 자유시장은 가장 효율적이고, 사회적으로 최적의 자원배분을 보장한다」

「화폐와 돈의 자유로운 흐름을 가로막는 장벽을 세계적 영역에서 제거하면 따라 달성되는 경제의 세계화는 경쟁을 자극하고 경제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며,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며,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거의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 신념들은 다음과 같은 신교전주의 경제학 이론이 포함하는 수많은 기본 가정들을 바탕에 깔고 있다.

「인간은 스스로의 이해관계에 의해 동기가 유발되며, 이 이해관계는 가장 먼저 재정적인 이익 추구를 통하여 표현된다」

「한 개인 혹은 회사에 최고의 재정수입을 산출해 주는 행위는 사회에 가장 이로움 행위이다」

「경쟁적인 행위는 개인과 회사에 합목적적인 행위보다 합리적이다」

「인간의 진보는 사회 구성원들이 소비하는 물건이 지니는 가치의 증진에 의해 가장 적절하게 측정된다. 그

리고 이전보다 수준이 훨씬 높아진 소비자의 소비행위 는 더 많은 경제 산출을 촉진하여 사회의 복지를 추진 한다」

수많은 가치있는 생각과 통찰들이 이런 극단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왜곡되어있다.

이 이데올로기는 인간이 지닌 근본적인 가치와 이상을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거의 의심없이 받아들여지는 대중문화 속에 너무나도 깊숙히 배어있다. 이는 우리 주위 어디에도 존재하며,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비민주적 영향력을 지니는 의제에 대하여 대중들이 가지는 불신을 무너뜨리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데올로기를 생산·전파하는 주범인 정부와 재벌·언론의 주장은 이렇게 요약된다.

「거대한 기업의 손에 자원분배 결정권을 내맡기는 세계화된 자유무역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게임의 새로운 규칙에 우리 자신을 적응시키는 법을 배우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 게임에 역행하는 자와 패배를 받지 못한 자들은 한꺼번에 내몰릴 것이고, 패배 확률의 자들에게만 돌아가는 보상을 받지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앞길은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경제성장제일주의의 영향력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자유시장(이데올로기)에서 '부'는 유일한 추방수단이며, 그 이데올로기는 사회와 환경의 해체를 더욱 심화하는 방향의 정책들을 추진한다.

그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인간 정신을 천박하게 떨어뜨리는 가치들이 체내 내에서 승리를 거두고, 현실에서 동원된 상상의 세상이 대중적으로 생산, 전파되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려워지는 방식으로 통치기관들이 재구성되고 있다.

그 이데올로기에 관해 회의나 의심을 하는 행위는 사

업계, 정계, 학계 등 대부분의 기관에서 근무하는 개인의 경력을 손상시키고, 그는 실질적인 '이단'으로 내몰린다

호주의 사회학자 마이클 푸저의 말을 빌리면, 그 이데올로기는 경제학을 '직적인 내성과 시민의 의무에 반대하는 이념적인 방패'로 축소시키고, 대부분의 대학에서 수행되는 경제학 연구에 이데올로기적 교외의 성격이 짙은 요소를 주입시키고 있다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짐한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이름들, 이클레멘트 신교전적 needsal로 이 신진보적(neoliberal), 혹은 자유론적 libertarian 경제학이란 이름으로, 그리고 신진보주의(modernism), 시장 자본주의 market capitalism, 혹은 시장 진보주의 market liberalism)는 이름으로 대중에게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우리 사회의 지상의 과제로 설정하여 달려온 198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정신적 기초를 이루아온 '경제성장제일주의'라는 논리에 밀려 우리 사회의 미래와 관련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논의들이 항상 힘을 발휘하지 못해왔다.

현재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경제성장제일주의는 모든 논의의 기본 가정으로 굳건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자.

과연 '경제성장제일주의'가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가?

김해원

(21세기경제문제연구소)

제4회 Culturette 선발

태평양 '여대생' 논문 공모전

세상을 움직이는 건 남자만이 아니다.

개척자 정신으로 플럼비스를 후원했던 이사벨 여왕, 영국 경제를 일으킨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 31운동의 상징으로 예극예복, 불굴의 의지를 지녔던 유관순, 이들은 모두 평범한 여성으로 살기 보다는 적극적인 사고와 진취적인 행동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여성을 위한 회사, 태평양은 이런 여성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일 만한 원대한 포부와 식견을 가지신 여대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참가대상: 전국 각 대학 재학생인 여대생, 여대학원생
2. 응모기간: '98.9.1~10.31
3. 응모주체: 현(대)성의 사회참여
4. 응모방법:
 - 문 양: A4용지 20매 내외 분량(워드프로세서 이용 작성 제출)
 - 2장내의 논문요약내용 별첨
 - 논문 원본 1부 및 사본 2부
 - 제출서류:
 - 재학생증서 ('98년 8월 현재)
 - 자기소개서 1부 (여권을 사진부착)
 - 연락 가능한 주소 및 전화번호, 호출번호 등 기재
 - 공동연구는 2인이 한함
5. 시 상: 최우수상 1명 -- 상액 및 상금 500만원
우수상 3명 -- 상액 및 상금 각 200만원
장려상 5명 -- 상액 및 상금 각 100만원
6. 입상자 발표: 1998년 12월 중순 개별통지
7. 제출처:
 - 우편번호 140-012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75-2 성원빌딩
 - 태평양강화문화재단 사무국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접수함)
8. 기타사항
 - 응모자 전원 기념품 증정
 - 수상자는 당사 일사시 우대
 - 수상자 전원에게 2박 3일 태평양 재주농장 견학
 - 제출 논문은 다른 진행물이나 논문지에 발표되지 않아야 함
 - 응모된 논문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태평양강화문화재단 사무국(02-749-2388/02-709-5631)
9. 심사기준: 독창성, 논리성, 실험성



태평양

강화문화재단

해의 통신-미국의 수단 폭격, 그 의도를 파헤친다

제3세계가 '동네 북'인가?

미국, 내부문제 해결 위해 무고한 약소국 민중 학살

테러, 감시의 특징?

지난 8월 초 국제사회를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다. 미국이 무고한 알칸에 대한 폭격을 가했던 것이다. 국제적으로 승인되고 인도주의적인 약탈품을 제조하는 수단의 한 공장을 화학물질을 개발하는 곳으로 간주하고 미사일 폭격을 퍼부었다. 미국의 말대로 이번 테러주의에 대한 중립자원에서 단행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런 방법으로 테러를 제어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근 국제적인 안보 환경을 생각해 봐야 한다. 즉 코소보 지역의 사태나 아프리카에서 거듭되는 내전 속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은 개입하지 않고 있다. 소위 인도주의에 반하는 죄를 짓고 있는 전쟁을 대해서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약 소국에 대해서 테러 지원국 문헌하면서 공격을 합리화시켰다. 이번 미사일 폭격으로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를 무참히 유린되었고 미국은 스스로를 경찰국가에서 아만적인 경찰국가라고 인정한 죄를 지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서 이러한 행동도 불사한다는 내전주의적 접근과 패권주의적 논리를 그대로 드러냈다. 미국은 냉전구조의 급격한 해소로 과거 군사분할체제의 생산구조가 이완되고, 극소수자 산업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자본가들 사이에 상당한 갈등을 빚고 있다. 즉 미국의 이번 사태는 국제내부 환경에서 정상이 없는 상황

에서, 그것도 테러와 직접 연관이 없는 국가들에 폭격을 가함으로써 미국내 자본가들의 경쟁을 완화시키려고 했다. 미국의 민간인을 겨냥한 살상은 감시의 특징 즉 힘이 곧 정의라는 부도덕한 명제를 합리화 시켰다.

이번 폭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미국내에서도 최근 성 스캔들에서 벗어나려는 클린턴이 진정한 '정치적인 문제'인 권력남용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폭격을 클린턴이 국내 성추문과 관련하여 관심을 돌리기 위한 국내정치의 연장으로 보고 있다. 또 이런 시각은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동서남북체제가 무너진 뒤 미국은 수차례에 걸쳐서 외교적으로 긴장을 조성해 왔다는 점을 유감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국내적으로 정치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을 인본하는 공공재를 통해서 극복하려는 클린턴의 정치적 도발이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단순히 직접적이고 표면적인 공화당 스타 특별검사의 공세를 피하기 위해서 지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전통적으로 미 공화당은 군사자본가들을 지지기반으로 삼아 왔다. 그리고 민주당 정권은 상대적으로 전자, 통신, 과학 기술 분야와 같은 비교적 신종 자본가 및 중소기업의 지지를 통해서 집권해 왔다.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져 있지만 미국 경제는 호황을 누리고 있

다. 그리고 이런 호황은 전자, 통신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도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전통적인 군사 산업 자본가들이 아직도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클린턴의 성추문 문제로 클린턴이 도중하차하는 것을 원하는 세력이 있다면, 바로 군사 산업 자본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클린턴이 군사산업 자본의 이러한 이해를 어느 정도 대변함으로써 공화당 정권의 지지 기반을 잠식하고 여론을 완전히 반전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즉 클린턴의 부도덕성과는 별도로 클린턴의 국정감사 압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확실하게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소외한 군사 자본을 대변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미 미국 사회는 자본들의 이해를 조정하기만 하면 작동하기에는 많은 기준들이 무너졌다. 소위 신자유주의 공세 속에서 반대로 국가의 시민사회에서 역할을 점차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소극적인 불개입으로 돌아 서고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국가 권력의 과도한 국가권력의 남용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번 폭격이 즉각 대통령 권력의 남용 문제로 전락한 것은 바로 이를 말해 주는 것이다. 미국의 평화운동 단체들은 10월 19일 을 "국방부 없는 날"(A Day Without the Pentagon)로 정하고 국방 예산 증액 등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문명충돌론의 함정

이번 미국의 테러적인 미사일 폭격의 직접적인 원인이 케냐 주재 미국대사관의 폭격 사건인데 미국은 이를 회교근본주의자들의 소행으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유일한 미국의 위협세력은 회교도 특히 근본주의자들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또 이번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는 아랍연맹 소속 22개 회교국가들은 지난 8월 24일 카이로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미국의 미사일 공격을 비난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를 두고 '두 이질적인 문명간의 충돌이 신념전립사를 구축한다는 새 무력 헌팅턴의 '문명충돌론'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의 본질을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이 문명적인 이질성으로 인해 기독교 세력들의 테러자로 회교도 또는 그 국가를 공격했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즉 서방 기독교 국가들과 서로 교감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폭격이 아니라는 점과 또 다른 이질 문화권에 속하는 중국과 최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점을 보면 이번 사태는 미국의 전통적인 합종연횡의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과거 미국이 개입한 주권침탈 사태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89년 파나마에 군사 개입하여 미수출 노리예가를 납치하고, 91년에는 이라크를 침공했다. 이전인 70년에는 칠레의 아옌데를 살해하고 우익정권을 세웠다. 79년에는 나카라와 산디니스타 정권의 토지개혁 등 일련의 개혁정책을



자국 내부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3세계 민중을 무차별 폭격 학살하는 미국의 패권주의가 극대하고 있다. 사진은 미국의 폭격으로 폐허가 된 수단 하르툼의 재야공정

봉쇄했다. 83년에는 그라나다를 침공하여 좌익정권을 붕괴시켰다. 다시 말해서 이번 미국의 수단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사일 폭격은 미국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과도한 부의 비대칭적 축적을 목적으로 국내 자본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일환이었다고 평가해야 한다. 이후 사태는 미국 시민사회가 국가

권력으로부터 얼마나 독립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세계의 양상들은 무고하게 사망한 약소국의 민중들을 위해서 미국의 패권에 반대해야 할 도덕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의무를 함께 남겼다.

이창수

(한국국제문제연구소 대표)

학술 심포지엄 - '독립운동 선상의 통합운동'

이념차이 뛰어넘은 '통합운동' 정신, 통일과정에 되살려야

지난 8월 7일(금)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열린 한국독립운동사연구회 주최로 제12회 독립운동사 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독립운동선상의 통합운동'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회의는 사상과 정견, 신앙의 차이를 뛰어넘어 통합을 위해 단합했던 남북조선헌정당·사회단체대표자 연설회의 50주년을 맞는 올해, 이념차이를 극복하고 자주적 통일국가 수립을 위해 진행되었던 '통합운동'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만열, 김진경, 서종석, 도진준 등 진보적 역사학자들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임시정부의 통합운동'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이만열(숙명대 교수)씨는 20여년에 걸쳐 다량하고 복잡한 자료를 펴며 전개되었던 임시정부(임정)를 중심으로한 통합운동의 실

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는 "일제에 대한 '국권회복운동'인 3.1운동을 계기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으나 독립운동 전선에서 나타난 독립운동 방법과 노선의 다양성은 독립운동 역량의 분산을 가져왔고 따라서 좌우익 연합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며 좌우합작 형태로 진행된 통합운동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논한 한진숙(단국대 교수)씨는 "독립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념과 노선을 달란하는 세력들 사이에 추진되었던 통합운동은 아직도 분단국가를 살아가는 우리 민중에게는 중요한 경험이자 자산"이라며 통합운동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김만일(고려대 사학과 교수)씨는 '일제시대 민족해방운동과 통일전선문제'를 발표했다. 그는 민족해방운동에서 민족통일전선이 가지는 의미를 국내외 사회경제적 배경

(계급적 측면), 민족해방운동 내부의 상황, 국제정세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그는 계급적 측면에 주목하면서

"우리나라는 전제군주제, 양반사회의 신분제, 성리사 유입사상 체제로 부르주아 계급의 성장이 늦었으며 이는 곧 프롤레타리아(노동자) 계급의 성장 부진을 의미한다"며 프롤레타리아 중심으로 혁명이 이루어졌던 다른 유럽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민족자본과 협력자 밀려들어있음을 설명했다. 이는 곧 좌익세력과 비협조적 우익세력(민족주의 좌파) 사이의 민족통일 전선운동이 구축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이를 논한 박진순(목포대 교수)씨는 "민족해방운동을 지나치게 정치사상이나 정치노선만으로 설명하는 틀에서 벗어나 운동의 역량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1930년대 혁명적 노동, 농민조합 운동을 통하여 노동자와 농민 사이에 운동의 역량이 크게 확대된 것은 '운동역량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요소가 있었음을 간파하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해방전후의 통합운동'을 발표한 서종석(성균관대 교수)씨는 좌우익 간의 통합운동을 전개해 온 배경에 대해 "신규세대의 갈등과 계급 갈등의 문제는 좌우대립을 심화시켰고 이는 해방정국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남북 북에 체제를 달리하는, 소 두 나라 군대가 와 있는 상황에서 민족통합운동만이 민족국가의 건설을 가능하게 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논쟁자 도진준(참원대 교수)씨는 이에 반론을 제기하며 "우리의 분단은 현

상 그 자체가 아니라 '외세에 의해 강요'되었음이 중요하고 따라서 내부의 대립, 갈등의 문제는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차원에서는 민족내부의 변수 즉 종교, 사상, 이념, 지역의 갈등보다는 외세의 변수를 중심으로 두고 우리 민족의 통합운동을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법과 이념의 다양성으로 비롯된 이념상의 갈등과 역량의 분산은 극복하고, 진정한 자주민족국가 수립을 위해 '통합운동'은 추진되었다. 이러한 '통합운동'의 경험을 과거의 역사가 아닌 현재의 역사로 승화시키는 것, 즉 남북간의 현실을 극복하고 민족통일을 실현하는데 있어 통합운동의 경험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의 문제는 이제 우리의 몫이다.

이진지 기자

학술 단신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학예연회 개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에서는 오는 29일(화)부터 오는 11월 14일(토)까지 연회학예교를 개최한다.

▲신문바로읽기(순석훈/연도원 위원장 직무대행/10월13일(화)) ▲정보시대와 대한언론(오연호/월간 '갈' 지기/10월 24일(토)) ▲한국영화의 현실과 전망(정성일/영화평론가, 'KIN' 편집장/10월 29일(목)) ▲대중가요의 양면성(이영미/문화평론가/11월 3일(화)) ▲특강(신영복/성공회대 교수/11월 12일) 등의 강연이 계속되며 언론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장소는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설 언론아카데미 교육관(지하철 5호선 마포역, 4번 출구)이며 수강료는 10만원이다.

문의전화 : 714-4562



세계 10대 유리메이커, 한국유리 - 40년 외길의 결실입니다.

불모지였던 국내 유리산업의 영광으로 불을 지핀 이래, 오로지 유리에만 전념해 온 40년 외길. 이제 그 결실로 한국유리는 우리나라 유리산업을 대표하며, 세계10대 유리종합메이커로 성장하였습니다.

더 좋은 유리를 통해 세상을 밝고, 아름답고, 이름게 —

HANGLAS

한국유리공업주식회사

한국유리가 만듭니다

편유리 · 편유리 · 유리섬유 · 결정화유리 · 건축용안전유리 · 자동차안전유리 · 경질유리 · 실린트



도전과 화해의 청년마당

4회 세계민속학술문화축전



세계민속공연
일 시 : 9월 12일(토)
장 소 : KBS 홀
시 간 : 14:00~21:00(총 2회 공연)

KBS홀에서 2차례에 걸쳐 치러질 세계민속공연에는 19개 문명권 학과 학생들이 참여한다. 공연은 연일되는 3개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된다. 1부 '세로로 통하는 세계'를 열며, 2부 '세로로 통하는 세계'의 만남과 인류공동체문화의 약속이란 주제로, 마지막 3부는 '세계가 하나되는 대동'의 마당'이 펼쳐진다. 1부에서 의미하는 '통일'은 비단 남북통일 뿐 아니라 지역이거주의 극복, 반목과 대립의 해소로 새시대를 열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공연 내용을 살펴보면 1부에서는 살풀이와 남도씻음이, 북춤 등을 볼 수 있고, 2부에서는 춤, 노래를 결합한 축하의식이 펼쳐진다. 3부 '대동의 마당'에는 한국팀이 판굿을 12분간 진행한다.

공연의 특징에 대해 민속공연 연출자 양건택(서학·영여 4군)은 "예전의 공연이 사회적 직접 설명해주는 '말하기' 방식이었던대 비해, 이번 공연에서는 철저한 '보여주기' 방식으로 꾸며보려 한다. 말로써 전달하는 것보다 관객이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공연 무대미술팀은 그림과 색채를 활용하여 조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등 학생들의 자발적인 힘으로 공연을 만들어가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세계예술·음악전

세계예술·음악전은 각국의 유명조형물이나 토산품, 사진 등을 전시하고 나라별 전통음악을 만들어 파는 행사이다. 이번 세계예술음악전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세민전을 널리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이삼기(세계예술음악전 준비위원장, 동학·이프리카어 2)와의 만남에서 알 수 있듯 세계예술음악전은 하나의 독립적인 행사이기 보다 세민전 홍보를 위한 이벤트적 요소로서 자리매김해 온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예년에 비해 훨씬 풍부하게 꾸며진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인물전을 마련했다. 20세기 이후 태어난 유명인사를 나라별로 한 명씩 선정했는데 존 폴란트 대통령 비서실, 축구선수 지단, 라틴비토의 최 등 우리에게 친숙한 인물도 많다. 둘째로는 각국의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안들을 화보로, 공연, 민속의상 패러디, 즉석사진찍어주기, 페이스 페인팅 등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한 행사가 많은 점이다.

한편 음악전의 경우는 가격을 2천원내외로 책정해 여러 가지 음악을 맛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일 시 : 9월 5,6일(토,일)
장 소 : 대동로와 방통대내
시 간 : 13:00~19:00



세계영화제

'제도권의 보여주기식'에 질려버린 문화접촉의 틀을 벗어나 세계영화의 새로운 흐름을 능동적, 비판적으로 수용한다. 이번 세계영화제의 기획의도는, 영화제에서는 아예 발맞추는 신예감독의 영화를 중심으로 작품을 선정했다. 이번 영화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감독의 이고 진보적인 세계 각국의 영화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영화상영장표는 다음과 같다.

학내	1회	2회	3회
시간	11:30	14:30	17:30
17일(목)	Welcome to Sara-Jevo	호남호녀	Holy Mountain
18일(금)	In the Company of Man	Sweet Hereafter	Sling Blade

학내	1회	2회	3회
시간	12:30	15:30	18:30
17일(목)	레니 그라드 카우보이 모세를 만나다	Kiss or Kill	Meet the Feebles
18일(금)	Nowhere	Shining	

학외	1회	2회	3회	4회
시간	10:30	13:00	15:30	18:00
19일(토)	변방에서 중심으로	Pill Book	Sling Blade	Arizona Dream
20일(일)	Pincino/Fried Dragon Fish	가깝고 먼...	Welcome to Sara-Jevo	Saream 2

세민전이란 무엇인가?

주인정신 살아있는 한마당

'세민전'은 '세계민속학술문화축전'의 준말이다. 이 행사는 '세계각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배운 것을 표현해 보고, 학생들이 주인의식을 대동문화화를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올해 열리는 세민전은 용인대문화재단 내 네 번째다. 본행사인 민속공연은 각국의 민속춤과 노래를 선보이면서 다양한 문화를 친숙하게 느끼게 해 주며, 함께 진행되는 풍물·음악전과 영화제는 세민전을 좀더 다채롭게 하기 위해 각각 84, 96년부터 시작되었다.

세민전의 기원은 1971년 서울배움터에서 열린 '세계민속예술제'에서 찾을 수 있다. 그 후 83년 8회까지 이어져 오고 학교측의 예산 문제와 학생행사로서 지나치게 상업적, 소비적이라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90년대 들어 학원지주화등 학생들의 관심이 학교발전으로 모아졌다. 이런 가운데 외대생들이 할 수 있는 행사로 '제1회 세계민속학술축전'이 용인대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부활되었다. 이후 비이론계열의 참여를 유도한 것은 학원생이 학생제가 참가되어 96년부터 '세계민속학술문화축전'으로 개명되었다.

한편, 서울배움터에서도 96년 '꿈의 복원'이

란 주제로 세계민속예술제를 개최하였다. 이때부터 용수 년도에는 서울에서 '세민제'가, 즉수 년도에는 용인에서 '세민제'가 열리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3회의 행사를 거쳐오면서 세민전은 양적, 질적인 발전을 계속해왔다.

실제로 96년 3회 세민전에는 2000여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리틀엔젤스 예술회관과 대동로에서 행사가 가졌는데 대다수 시민들의 참여도 이끌어낸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세민전이 살아야 할 속제는 아직도 남아있다.

첫째, 비이론계열의 참여를 확대시켜야 한다. 둘째, 세민전준비위원회를 상설기구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행사의 성과와 오류점들을 논의하는데 있어 연계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나라 문화에 대한 계속적 연구행사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이다.

앞의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간다면 진정한 대동을 대표하는 행사로서 세민전은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정서윤기자

98 세민전 준비위원장 임성진(동학·중국어 4)군을 만나다

"도전하는 청년마당을 만들어보자"

98세민전의 모토는 무엇인가. '도전과 화해의 청년마당'이다. 도전은 한시기에 대학생이 사회·정치적으로 많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젊은이로서 진취적인 기상을 찾자는 의미이고 화해는 세민전의 궁극적 지향을 나타내고 있는 말로 남북화해를 통한 통일을 내포하고 있다.

세민전이란 정장으로 우리하고 최대 문화행사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 비이론계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세민전은 어떤계열의 학생의 주체로 인식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비이론계열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이번 세민전에는 비이론계열 학생들이 학술제 재단을 통해 이 문제를 극복해 보려하였다. 하지만 학술제는 이번에도 실시하지 않는다. 대신 경합에서 한국 음악사와 풍물전, 인물전을 준비했다. 지대·공대·인문대의 경우는 2학년 세민전에 학술제라는 형식으로 결합하는 부분을 논의 중이다.

올해 세민전 이전에 비해 특별한 다른 점은 무엇인가.

올해는 영화제 즉 세계영화제에 많은 실험을 기울였다. 회귀하며 예술성있는 작품을 통해 각국의 문화 이해라는 측면에서 영화제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번에는 10여개 국가의 작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참가 작가를 초청해 놓았다. 이들을 위해 손잡이문화 축신의 92학번친구가 수화로 사회자의 멘트를 옮길 것이다.

행사를 준비하면서 많이 어려웠는데.

2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워낙 방대한 행사라



어려움이 많았다. 가장 힘들었던 것이 장소와 문제였다. 결국 KBS홀, 방통대, 쌍용홀을 빌렸지만 파장은 너무 힘들었다. 중앙관부도 30명이 적정수이지만 22명이 현재 인원이다. 예전의 자료나 경험이 이어지지 못한 부분도 많았다. 스폰서 선정이 어려워 예산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었지만 조금은 현실화되어버린 개작식과 폐작식을 간소화하는 건은준영을 통해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었다.

민속공연에 세대를 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 행사에 참가 작가를 초청해 놓았다. 이들을 위해 손잡이문화 축신의 92학번친구가 수화로 사회자의 멘트를 옮길 것이다.

김민석 기자

외대인이외대인에게

노래타래-천리마1.5집

치열한 삶의 노래 묶음



TV나 라디오에선 들을 수 없는 노래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함께 부르는 노래. 정신없는 문화의 홍수속에서도 사회의 모순과, 참된 고민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제가 소개드릴 음악은 '자주의 세계'를 노래하는 청년의 함성 '경남남부총련 노래단 천리마의 '노래타래'(테이프)의 수록곡입니다.

아마도 많은 외대인들에게 생소한 이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96년 1집음악을 발표한 이후에 2집을 고민하며 중간 총학생들의 성격으로 발표된 음악이 이번 '노래타래'입니다.

이 '노래타래'에는 지난 상반기 동안 공연과 집회의 장에서 대중들을 만나며 집중되었던 곡을 중심으로 이후 하반기에 정리되었던 하는 곡들이 실려 있습니다.

'조국을 위하여', '절친해서', '혁명'의 길', '해방꽃', '오직 한길로', '문을 두드리는 사람' 이상 6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조국을 위하여'를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산나는 울릉(그곳도 27기)과 함께 알려진 '조국을 위하여'는 쉬운 가락과 경쾌한 빠르기의 곡입니다. 청초와 혁신이 살아있는 청춘을 산다고 하니까...의 노래처럼 인생의 불시절을 조국을 위해 살아가고 노래합니다.

민중가요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나 새내기 같은 경우, 이번 노래들에 거부감을 많이 느끼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러나 이 노래들은 '천리마'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학생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의 노래들을 유익한 노래, 발걸음 노래로 치부해서는 안되겠죠. 소개드릴 '천리마'의 '노래타래' 뿐 아니라 여러의 민중가요들을 편견없이 들어달라는 부탁을 드리며 음악 소개를 마칠까 합니다.

최영

<외대노래팀 '천년' 단장, 사회·신발>

문화단신

98 여름 노래학교 개최

'노래에 대한 고민을 나눈 자리'

서울배움터 '98여름 노래학교'가 지난 달 20일(목)부터 22일(토)까지 3일간 용인배움터 학생회관에서 열렸다.

외대노래팀장 '천년'이 주최한 이 행사에는 10개 과노래팀이 참여했다.

첫날에는 '희망의 노래 꽃다지'의 이은진씨와 '대동문화'에 대한 강연을 했다. 이어 1학년은 '대동가요'와 '민중가요', 2학년은 '노래'와 '주제곡'을 주제로 토론시간을 가졌다. 또 가창·반주·음향등 분과별 모임도 진행했다.

행사를 준비한 최영(청년 단장, 사회·신방사)군은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과노래팀들을 하나로 모으고 노래에 대한 서로의 고민들을 함께 했던 좋은 시간이었"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오늘부터 3일간 앵글스 사진전

생소하지만 기발한 작품 접할 기회

서울배움터 사진동아리 '앵글스'가 오늘(1)일부터 3일(수)까지 3일간 교내 마비라나 전시실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2학년 이상 부원들만 참여하는 정기전으로 개성있고 다양한 46편의 작품이 선보인다.

회장 임호재(사회·정외2)군은 "생소하지만 기발한 작품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하며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유틸리티 슬렉스 피씨에스(pcs)016 광고를 보면

016을 모르면 원시인이라 한 광고는 일찍 막을 내렸으나 실제로 나온 광고는 쉽게 막을 내리지 않는다. 그 광고에 공감을 하기에 그러할까? 둘째 광고는 뒷간에 걸린 걸과 보이기관을 읽지 못하는 원시인을 다뤘다. 그러면서 016으로 두 날달을 일러준 다음 날자를 보여 원시인이라 말한다. 영여날달(사진)을 찾는다면 그처럼 쉬운 영어는 찾지 않으리라.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말은 쉬운 말이지만 뜻을 제대로 모르는 때가 무척 잦다. 낱말 책을 뒤적거리면 영어보다 우리말을 더 뒤적일 판이 아닐까? 그렇지만 016은 다른 물건이든 뒷배(지인)되는 기능은 영어가 가능 위주다. 우리말 뒷배는 드물다. 정작 우리가 갖추어 기능과 우리가 알아야 할 말과 말(문법)과 맞춤법과 소리나기법이 무엇인지 알아야겠다. 우리말을 틀리게 말해도 원시인 대접받는 세상이 정상사회라 말하는 나도 원시인일까?

최종규(서양·내일드러와 2)



'도전하는 청년 정신'

주최 : 한국의국어대학교
주관 : 용인캠퍼스 10대 총학생회
98세계민속학술문화축전 준비위원회
후보 : 한국의국어대학교 총동문회
문의사항 : 030-30-4154

세계민속학술문화축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민화협, 주인 누구인가

정부 주도 ... '창구단일화 기구'로 전략 우려

우리나라 최초의 정당·사회단체간 통일 운동협의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의 결성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민화협 준비위원회 발족식을 즈음해 '통일 운동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보도했던 언론 발표와는 달리 통일운동계 내부에서는 '의심'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민화협의 허와 실은 무엇인가? 먼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대추진'의 제안 배경과 민화협의 결성과정에 대해 살펴보자.

북측은 올해가 지난 1948년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50돌이 되는 뜻깊은 시기로 규정하고, 그 결함과 업적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사상과 이념, 정권과 신장, 민족의 차이 등을 초월하여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만들고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 통일과 전향적 국면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래서 북측은 올해 8월에는 '민족화해협력의회(통일을 희망하는 남북 및 해외단체 인사들과의 접촉과 정책,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북한인의 정당·사회단체 연합기구, 준비위원회: 김일성 사회민주당 부위원장)를 결성, 6월 10일 대추진을 제안하는 편지를 제쳐, 15일 판문점을 통해 남북 정상·사회단체 대표 85인이자 전달했다.

이에 남측에서는 6월 20일 전국연합과 민족회의, 결성된 통일협회 등 120여 단체 16명이 참석 '대추진 남북추진본부 준비위원회'를 결성했고, 두차례의 준비위원단장 회의를 거쳐 7월 4일 제1차 사회단체 인사들이 모여 '민족의 화해·협력·통일을 위한 대추진 남북추진본부(남북추진본부)'를 결성했다.

한편 정부는 북측의 민화협에 필적할 만한 한국의 통일운동협의체를 만들고자 급기야 7월 8일 통일부 주선으로 4개 정당과 8개 사회단체 대표를 선정,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민화협 결성 작업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여당(국민회의)이 실질적으로 민화협을 주도하며 돌았고, 남북추진본부와도 결집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우리측에 끝내 결국 8월 5일 민화협 준비위가 결성되었고, 오는 3일 민화협이 정식으로 발족할 예정이다.

민화협 발족에 있어 큰 논란거리 중 하나는 과연 민화협이 1948년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의 정신을 담고 있는가의 부분이다. 모던에서는 나온 문장을 살펴보면 "한 민족통일운동 전선에서는 민화협의 뿌리를 지난 1948년 김구, 김구식 선생이 참여했던 '연석회의'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적혀 있다.



민족통일운동협의체인 민화협의 결성을 앞두고 통일운동전선에서는 민화협이 자칭 정부의 '변방민 창구단일화기구'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월 5일 민화협 준비위원회 결성식 장면.

그러나 이에 대해 통일운동전선의 생각은 회의적이다. 민족회의 김재규(30세)는 개인 의견임을 밝히면서 "민화협의 뿌리라고 말하는 48년 '연석회의'의 정신은 사상과 정견, 지역과 종교 등의 차이를 넘어 민족과 통일을 바라는 데의 화에 단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범민련, 한총련의 이익구적으로 인해 통일운동을 이끌어가는 두 단체가 불합하게 됨으로써 원칙적으로는 그 의미를 잊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국연합 박재길 정책위원장은 "민화협은 통일을 도모하고자 하는 열의였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등 통일을 가로막는 법·제도적 장벽에 대한 개선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입장은 없이 민화협이 발족한다는 것은 심하게 말해 '기만'이다. 그리고 통일운동을 이끌어왔던 한총련, 범민련의 불참에 이어 전국연합과 민주노총마저 참가를 유보한 상황에서 민화협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또 하나의 논란은 민화협이 민간통일기구로서의 자율성과 독립성, 건장성을 가질 수 있는지의 부분이다. 민화협 준비위원회 정책위원장으로 북측중심 이창희(국제법) 교수는 "실제로 민화협 결성 과정에서 정부의 간섭이 있었으며, 정부가 실질적으로 민화협을 주도해 통일운동전선을 관주도로 재편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말했다. 단적인 예로 정부측은 민화협 준비와 상임준비위원장에서 수석위원장 제도를 두자는 제안과 함께 수석위원장을 정당 대표(여당 대표)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남북추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통일대추진을 민화협이 맡아 진행하고

남북추진본부의 민화협 한 특별기구 형태로 두려왔던 점도 정부가 실질적으로 통일운동전선을 관주도로 재편하려는 의도임을 뒷받침해준다. 이에 대해 이창희 교수는 "남북추진본부는 통일대추진을 추진해야 하는 역할이 있었고, 정부는 그것을 지지·지원해야 하는 역할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민간인의 자율성을 통제하고 관리하고자 했다는 것은 창구단일화 논리를 그대로 이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통일운동전선의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민화협 건설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전국연합 박재길 정책위원장은 "민화협은 8·15 대추진의 조직적 성과물과 모자라 그 원으로 결성해야 한다. 민간 통일운동전선의 의지를 하나로 모으고 독자적인 영역을 만든 이후에 그 힘을 가지고 민화협에 참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 의해 각개격과 당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즉 남북추진본부에 참가했던 단체들을 모아 민화협과는 별도의 독자적인 실천대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렇지 않고 민화협에만 의존한 경우 민간통일운동전선이 김대중 정부의 '민간 외곽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민화협이 남측의 광범위한 세력이 결집하여 통일을 논의하는 정당·사회단체 협의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모든 단체의 조건 없는 참여 보장과 통일의 결집들이 되는 국가보안법 등 법·제도적 장벽의 개선 노력, 민간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의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민간통일운동전선의 힘을 결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사회부

한총련 명동성당 농성단 단장 박종철군을 만나

“이적규정 철회로 대중토대 세우겠다”

한총련 대의원 70여명 46일간 명동성당서 농성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대의원 70여명은 6월 25일(목)부터 지난날 9월(일)까지 46일간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진행했다.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철회와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적인 범민족대회 보장'을 기치로 내걸고 농성을 진행한 명동성당 농성단 단장 박종철(67) 한총련 학원지주추진위원회 위원장, 강성대 총학생회장)군을 만나 이번 농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편지자

명동성당 농성을 시작해 된 이유는

실지자 400여명에 하우에도 민명적 실업자가 생긴다. 민중생존권이 바람 끝에 내몰려 있더라도 과잉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과 민중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있으나 우리는 이러한 요구들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공지에 드러났는데 김대중 정권이 학생들과 민중의 분노를 과잉해 출과구를 마련하기 위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비이성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당한 한총련의 이적규정은 철회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 한다.

또한 민족의 영원한 통일을 위해 남, 북, 해외가 함께 하는 평화적인 범민족대회 개최 성사를 주장하며 이곳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진행했다.

자내서서 침묵들은 무엇인가.

성당앞에서 개광명 정을 치고 있는 보안수

명동성당 농성의 성과점

한반도에 민중생존권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다. 그러나 대중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해야 할 한총련 대의원들이 대중층에 깊이 들어가지 못해 그들의 요구를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농성을 통해 대의원의 권위주의와 형식주의를 타파하고 지도단위의 역할과 대중성을 강화시켰다는 것이 성과점이다. 이는 대중과 함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명동성당 농성후의 활동은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철회와 '국가보안



박종철

법 철폐 운동은 관철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또한 IMF 재협상과 '정려해고제 철폐'로 민중생존권을 지켜내는 활동도 계속 벌여나갈 것이다. 민중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며 진정한 '대중'에 살아가는 한총련이 되기 위해, 언제나 민중들과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재연 기자

사회단신

정치수배 해제 촉구 농성 진행

'집결장 정권'과 '정치수배해제 모임'(수배해제 모임)을 결성한 한총련 한부 7명은 지난 9월 9일(일)부터 조계사에서 '정치수배해제'를 주장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와 투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고통받는 수배자들의 인권문 해결을 위해 농성을 시작한 이들은 정치수배해제 해제, 양심수 문제 해결,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철폐 등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배해제 모임 대표 오창규(39년 남측연의장 활동 중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배)씨는 "합법적인 연루자와 정치인들은 특별사면으로 완전 사면, 복귀반대 반해 정치수배자의 경우는 450여명 중 90명만이 형집행정지·가석방 요건을 본'이라며 김대중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명했다.

이이 그는 "앞으로도 후원의 서명·원인 운동을 전개해 언론을 통한 여론조성 운동을 펼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민회의와의 협상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기, 고용승계 촉구 농성

현대중기산업 노동자 300여명은 지난 7월 14일(화)부터 '부당파출 철회'와 '100% 고용승계' 등을 주장하며 조계사에서 전직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7월 7일(화) 전국각지에서 서울에 집결한 조합원들은 기일이 부당파출된 후 지금까지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다. 이에 대해 박찬식(현대중기산업 노조위원장)씨는 "우리 회사는 파출기업 대상이 아니었다. 이는 건설업 노동자를 모두 정리에 따라 시한 후 일용직으로 돌려 보낸 것에 일을 시키겠다는 의도일 뿐"이라며 고용승계 보장을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지난날 20일(수)에는 가족들과 전산단 위시가 참석한 가운데 노동자 12명의 식별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이종교(현대중기산업 사무국장)씨는 "계속되는 탄압에서 의지를 더욱 굳히기 위해서"라며 식별식을 진행했다"며 "앞으로 완전한 고용승계가 관철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범민련 의정단 6명 구속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김남 의원장을 비롯한 범민련 의정단 6명이 지난 15일(토) 불법연행·구속되었다.

지난날 12일(목)부터 15일(토)까지 서울에서 진행된 '민족의 화해와 단합·통일을 위한 대추진(통일대추진)'과 '9차 범민족대회'에 참가했던 범민련 의정단은 행사 마지막날 판문점 출장식을 벌인 중 불법연행·구속됐다. 이에 대해 6기 한총련 총합 송준희(영남대 총학생회장)군은 "우리는 평화적으로 판문점에 가서 했으나 김대중 정권은 폭력과 불려력으로 맞서 반통일적인 본질을 드러냈다"며 "정부는 불법연행한 범민련 남측본부 의정단을 즉각 석방하라"고 말했다.

불법연행·구속된 범민련 의정단은 김남(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씨를 비롯 김광두(범민련 남측본부 상임부의장), 광범준(범민련 남측본부 고문), 이현수(범민련 남측본부 고문), 박창균(제9차 범민족대회 통일선봉대 총대장), 문재홍 씨들 6명이며 현재 육안동 대공본에서 구속·수사중이다.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한 준비는 지나간 날의 경험으로부터 시작된다!

새 신을 신고 먼 길을 나서는 이는

결코 멀리 갈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멀리 가려는 이는

자신의 발에 이미 길이 들어

조금은 낡은 듯 하지만 그다 편안한,

자신만의 신을 꼴라 신는 법입니다.

지나간 날이 성공적이었던, 다소 실패적이었던

되짚어보면 분명 당신에게 꼭 필요한 날들이었음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어내는 것 -

이것이 바로 새로운 화기의

가장 좋은 출발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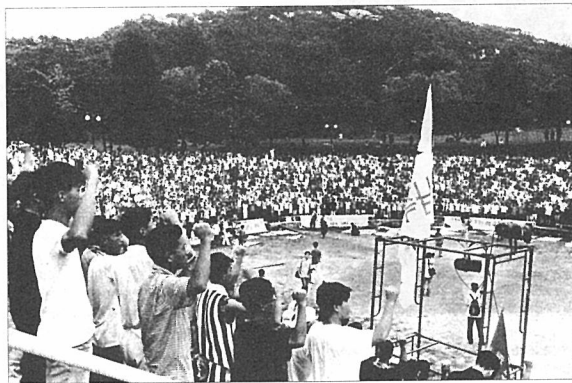
가장 훌륭한 준비가 아닐까요.

포항제철

철강으로 나라사랑

포항제철은 젊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맨몸으로 일궈낸 통일의일보전진



제작 : 임승희 기자

통일만 남았다

세상을 삼킬 듯한 폭우에도, 2만여명에 달하는 전투경찰의 봉심검문과 침묵위협 속에서도 한층더 화성들과 범민련인사, 제 사회단체 회원들 3천여명은 서울대에서 9차 범민족대회를 통일대축전을 성사시켰다.

북에서 제안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대축전(통일대축전)'이 판문점에서 공동선사되지 못함으로 인해, 민족대단결의 전환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다.

민간급 통일행사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며 범민련과 한총련을 통일대축전에서 배제시켰으로써 남·북·해외가 함께 판문점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은 서울대에서 통일대축전과 9차 범민족대회를 개최했다.

한편, 정중단 공화에서는 '남·북·해외의 화해'가 전국연합과 민주노총의 주최로 열렸으며, 일각에서는 '민족의 화해·평화·통일'을 위한 대축전 남측추진본부(남측추진본부)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통일대축전을 진행했다.

본보는 같은 장소는 아니었지만 남·북·해외가 함께 진행된 서울대에서의 9차 범민족대회와 통일대축전을 취재해 실는다. 편집자주

다 맞아주마

판문점에서 북과 해외동포를 만나기 위해 정문을 나서는 학생들과 범민련 소속 인사들에게 길대중집회는 잡초에 농악을 부리듯 활기로 피우려 부려졌다.

맨몸의 호소

통일대축전을 맨몸으로 지켜내는 열의 전사 통일대축전의 활동은 올해에도 '백국'을 실현으로 보여줬다. 구호를 외치고 대열의 선두에서 물대포를 맞으며, 그들도 통일은 해야 한다고.



8월 통일대회 쟁점과 흐름을 돌아본다

DJ, 통일대축전에 마음없었다



끝까지 간다

통일로 가는 힘찬 필박질이다. 심장이 터지도록 앞줄까지 판문점까지 가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대응할 수 있는 통일운동전열의 힘이 결집되지 못했던 점 등으로 결국 남북의 모든 통일운동단체가 참가하지 못한채 통일대축전이 진행됐다.

통일대축전의 제안 배경과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를 알 수 있다.

북측은 지난 6월 10일 북한의 정당·사회단체 연대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를 결성 통일대축전을 남측에 제안하는 편지를 채택하고, 15일 판문점을 통해 남북 정당·사회단체 대표 85인에게 전달했다(자세한 내용은 8면 '민화협' 기사 참조).

이후 19일 통일부가 먼저 통일대축전 수용의사를 밝혔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민간통일운동전열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있기도 전부터 민간차원의 행사에 정부가 개입 '승인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는가 하면, 사상과 정견을 초월한 민간차원의 행사에 한총련, 범민련 배제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결정적으로 통일대축전에 찬물을 끼얹었다. 또한 7월 4일 '민족의 화해·평화·통일을 위한 대축전 남측추진본부(남측추진본부)'가 결성됨에도 통일대축전을 민화협이 주최하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정책위원장 이장희(법학자) 교수는 민

화협이 남측추진본부의 고유한 일까지 대신하려 했다. 그 예로 여당측이 북측에 통일대축전 실무회의의 제안 주체를 남측추진본부나 아닌 민화협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당시 민화협은 준비위원회로 결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심무회담 대표 역시 정당대표, 즉 국회의원 대표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민화협이 남측추진본부를 흡수, 관이 민간통일운동을 통해, 관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또한 통일운동전열은 "정부가 국가보안법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북측의 만나서 통일하겠다고 하면서, 막상 범민련·한총련에 대해서는 이적 규정을 들어 통일대축전 참가를 배제시키는 것은 자기감안"이라고 주장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측추진본부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는지도 있다. 전국연합 박세길 정책위원장은 "정부의 범민련·한총련 배제 방침에 대해 남측추진본부가 원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않고 기술적으로 '알은 수'를 쓰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됐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민족회의 김재규(30)씨는 "남측추진본부와 정부의 마찰도 피하면서, 범민련·한총련의 가입도 유도하려는 고육지책으로 눈치채지 않아서 아닌 개인

지적 참여'라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통일대축전이 제안된 본래 의미가 '제정당·사회단체의 대표가 단체차원으로 참여, 사상과 정견을 차이를 넘어 민족의 단합을 도모하자는 것'이었다는 점, 또한 북측이 한총련과 범민련이 배제된 상태에서는 통일대축전을 남측추진본부 및 민화협과 함께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던 점 등을 미루볼 때 남측추진본부가 상황 판단을 잘못했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통일대축전이 남측추진본부의 결집된 힘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한총련·범민련의 조직적 참가, 전국연합·민주노총의 부분 참가, 일부 재야단체의 참가로 진행된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박세길씨는 "김대중 정부는 예로부터 통일대축전을 성사시킬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앞서서도 살펴봤듯이 정부가 민간차원의 행사에 개입해 통일대축전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었고, 국가보안법을 이용 한총련·범민련의 참가를 배제, 북측의 신검을 견드려 실질적으로 북이 수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또한 남측 통일운동전열의 단결을 방해, 남측 통일운동전열이 모두 참가하는 통일대축전의 성사를 힘들게 만들었다.

이런 힘든 상황속에서도 한총련과 범민련 남측본부는 통일대축전 남측추진본부에 적극

적으로 참여해 통일대축전과 범민족대회를 성사하고자 했으나, 결국 이적규정으로 인한 정부의 참가 배제 방침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이에 한총련과 범민련 남측추진본부는 '9차 범민족대회 추진본부'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대축전 남측추진위원회'를 구성,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서울대에서 범민족대회와 통일대축전을 치렀다. 이에 대해 범민련 남측본부 김희남 의장은 "김대중 정권의 통일대축전 방해와 통일운동전열의 분열 공작으로 인해 모든 단체가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서울대와 판문점에서 남북해외가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은 시간에 범민족대회와 통일대축전을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작년까지 겪었던 통일운동전열 내부 분열을 극복하려는 노력도 돋보였다. 서로가 서로의 대회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기층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편이다. 전국연합 한 관제자는 "정중단 공원에서 전국연합과 민주노총 주최로 진행된 '9차 추·통일 회의대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범민족대회와 통일대축전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대로 가려고 했었다"며 "이는 통일대회는 달리 치렀지만 정서적 공간감이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사회부

재 단투쟁 아직 끝나지 않았다 ① 관선이사가 풀어야 할 문제

구악일소 · 대학운위 건설이 시급한 과제

학원 3주체, 관선이사 함께 논의하여 과제 풀어가야



98년 1학기 이숙경 전 재단이사장의 '적절한 여러분께 드리는 글'로 시작된 재단비리 문제. 이 속에 서 우리는 교수 · 학생 · 직원 모두의 노력으로 수심익을 축복한 박승준 전 재단 전무이사를 사임시키 시키고 관선이사를 맞게 되었다. 관선이사! 신원진 지금 이 시점에서 위대발전 정상을 위해 관선 이사가 시급해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학원의 진정한 민주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편지자

첫번째,

구악일소없이 외대발전은 없다

91년 당시 민자당 국회의원인 김문기 상 자데 이자장은 재단이사진 장원을 부인, 강동 김씨 문종 인사 등 자신의 친 · 인척들은 재 무고, 사촌, 매제, 이종, 6촌 등을 이용하여 대학 과 전문대학의 핵심요직을 장악했다. 김문기 의 비리행각은 끝없이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 서 문제제기를 하는 교수와 학생들은 재단을 탈락과 음모조작 등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민주적인 교수 · 학생 · 직원들의 중단없는 투 쟁은 김문기를 거역해 대학 등록금 전향과, 134명의 학생 부장 편 · 입학, 부당한 무기 및 호외보도 조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부 당한 인력을 행한 혐의 등으로 93년 3월 구 속시키는 성과를 가져왔다.

이어서 교육부는 93년 4월 4일 관선이사를 파견하고, 그 해 8월 김문기 교수 민주총창 으로 선출되면서 삼지각원은 학내 민주화를 이루는데 성공한다.

하지만 민주화 분위기에 잠시 김문기 세력 은 곧바로 재단 반란소송을 제기하고, 학내에 남아있는 자신의 세력들을 이용하여 끊임없는 삼지대 복귀 음모를 계획했다.

김문기 세력들은 94년 입사부정과 관련한 재학하고 교수 해임과 학교운영상의 문제점을 들고 높아지면서 총장실 정치 농성을 벌였으 며, 교육부 역시 김문기 세력이 제기한 학교 운영상의 내용에 대해 처음엔 '특이 사항이 없다'고 통보했다가 95년 4월 김문기 다시 문제삼고 나온음으로 김문기 세력과의 유착 의혹을 샀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 감사 결과보고서도 당시의 관선이사회의는 김문기 세력들을 포진시킨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결국 민주총창 으로 추대된 김문기 교수를 해임시켰다. 이에 대해 교수와 학생들은 즉각 수업거부와 농성 에 들어갔으며,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부를 상대로 끈질긴 문제제기를 하여, 교육부는 95 년 11월 김문기 교수 총창에 복귀시키고 그 동안 반란을 일으킨 이사들을 교체시켰다. 이로써 삼지대 사태는 일단락 되었으나 김문 기 세력의 학원 재복귀 움직임은 아직까지 계 속되고 있다.

'교비예산 2억5천7백만원의 개인영도로 유 용하고 부장편입과 관련 2억7천만원의 수, 학 사, 대학의 총무, 편입학, 회계분야와 대학시 설공사 13건 총 44억 6천만원의 계약시 직접 시공업자 선출 등으로 적발남'

위의 사항은 학생들의 뜨거운 외대발전 의 자에도 불구하고, 수년동안 우리학교를 자신 의 사리사욕을 쫓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박 승준 전 재단 전무이사의 혐의 사실이다. 이 러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박승준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아주 당당하게 풀려났다. 이렇게 풀려난 박승준이 과연 자신의 수업

창구였던 우리학교를 가만히 둘 것인가?

자신이 설립한 학교이므로 자신이 학원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둔 전 재 단이사진 중 학교 설립자의 친 · 인척들은 재 단이사진에 재등극하기 위해 끊임없는 책동을 자를 것을 것이다.

삼지대 김문기 전 이사장이 학내로 들어오 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만행을 저질렀 던 것처럼 박승준 또한 언제든 다시 들어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박승준 전 재단 전무이 사의 부장 · 비리 사실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 고 그가 교수 · 수감되었으나 집행유예로 풀려 나옴까지 학내에는 여전히 박승준을 비호하 는 세력들이 잔존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삼지대 예에도 나왔듯이 학원을 다시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 김문기는 학내에 남아있는 자신의 비호세력들을 중심으로, 학 내의 문제들을 사사건건 간섭하고 문제화시켜 자신의 사익으로 포섭한 정부 고위급 인사들 을 이용, 자신의 반대세력들을 축출해버리고 재진입하려 한다.

이렇듯 비리세력들이 학내에 남아있으면 여 론을 조성하여 학원을 자신들의 소유물로 다 시 만들기 위한 작업들이 펼쳐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력들을 없애기 위해 관선 이사는 노력해야 한다. 더 이상 부패한 자들 이 신성한 학원에 침입하여 자신의 사리사욕 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학원이 유용해지는 인연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두번째, 민주적 의사결정기구는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

바로 구성된 재단이사회는 무엇보다 대학운 영에 대해 통제해서는 안되며, 학원의 자구권 과 구성원들의 자율권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 다. 재단이사회가 대과구성원들과 함께 논의 하고 협의의 해야 하지만, 대학운영에 관한 권한은 대과구성원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민주적 의사결정기구 구성되지 않 는 한 누차 탈락했던 사립학교법상의 비민주 성들을 극복하기 힘들 것이다. 특히 이사장의 권한이 가능한 한 교육법상으로는 또 다시 박 승준과 같은 인물이 등장하지 말아야 하며, 다 학교운영과 관련한 모든 운영사항을 더 이상 재단이사진, 총창 등에 맡기는 것이 아 니라, 학원 3주체가 논의하는 운영기구를 건 설하고 여기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절차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현재 우리대학 대과 중 정관상 가장 민주적 인 절차를 가지고 있는 학교는 조선대학교다. 조선대는 지난 8년 박철홍이사장이 조선대를 사유화시키는 과정에서 학내 민주화를 요구하 는 교수 · 학생들을 전원 축출하고, 학생적 지 원들이 학생들을 납치 · 강압 · 폭행 · 고문 등

을 자행하였다.

이에 대해 교수 · 학생은 물론 관주시민들까 지 결집, 4개월여에 걸친 투쟁 끝에 박철홍을 쫓아내고 관선이사를 파견하게 하였으며, 이 의 산물로 학원의 민주적 의사결정기구를 만 들었다. (표1 참조)

우리학교가 민주적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 게된다면 이 틀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일 것이 다. 특히 총창 선입, 예 · 결산 공개, 재단이사 진 구성원 추천 등의 안전에 대해 학원 3주체 의 의사기 모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재진입 정관이기에, 그동안 문제가 됐던 부분 특히 박승준이 수 년간 수백억의 공금을 횡령했음 에도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이 민주 적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투명해질 것이다.

세번째, 외대발전 계획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야 한다

IMF 사태를 맞아 각 대학들도 알바생 대용 을 하고 있다. 우리학교도 여러가지 구조조정 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른 특성화, 전문화를 꾀해야 한다.

외대발전계획을 위한 여러 방안 중 어떤 방안이 외대발전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인지 학생, 직원, 교수 3주체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 리 · 확정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이전에 정해진 외대발전 5개년 계획도 아직 몇 개를 제외하고는 집행되지 못한 것이 대부 분이다. 또한 그동안 박승준 전 재단 전무이 사의 비리로 인해 지난 학기 제대로 펼쳐지 못한 계획들이 상당히 많아 이를 만회하기 위 한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조만간 기회조정처에서 구조조정안을 마 련 ·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를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여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대발전의 주인은 학원 3주체

관선이사 파견은 한국의대과가 거듭날 수 있 는 계기일 뿐,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됐다고 해서 학교가 정말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결 코 아니다.

우리학교가 거듭나려면 바로 학원 3주체들 의 주체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 다. 이점과 같이 박승준의 비리의혹이 있음에 도 그날 지나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지난 학기 총창회 평정으로 관선이사 파견이라는 소중한 성과를 얻었던 투쟁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교수 · 학생 · 직원이 학원의 주인으로 설 수 있도록, 외대발전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모든 학교 운영 사안들을 지켜보고 그에 맞는 대응을 벌 여야 할 것이다.

대학부

DJ와 희망새

0...김대중이라는 관린이이 수목원에 들어왔다. 이젠 관린이 김명삼은 특히 재 들을 못살게 굴어 악명이 높았던 상태 였다.

그래서 수목원은 김명삼을 쫓고 새 를 잘 돌봐줄까라 소문난 김대중이라는 사람 을 관린으로 발령을 내렸는데, 허허! 김대중은 초가에 새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 같더니, 급기야 희망새라는 목 소리 좋은 김대중을 잡아가서 자신의 새장 에 가둬두는 것이 아닌가. 이를 안 원장은 후회를 하며 악처진 "대중이나 영삼이나 그놈이 그놈이구나"

(석)

0...얼마전에 저는 너무나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며칠동안 이바가 다 나 는 공장에서 생활했던 것입니다. 이상 하게 생긴 기계들, 빨간 옷을 입은 아바 가 소리지르는 모습, 어떤 아바씨가 높은 골목에 올라서서 서서히 하는 것 처럼 며칠동안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옥상에 텐트도 쳐 놓고 자고요. 물론 이상한 옷을 입고 얼굴을 다 가린 헬멧 을 쓰고 있는 아바씨들이 있어서 무심간 했지만 나중에 는 그것마저도 재미있었어 요. 다른 친구들 유지원할 때 난 무슨 이



유에서인지 항상 집에 혼자 있어야 했고 너무 심심했어... 물론 지금은 아바 회 사에 가서 놀 수 없지만 괜찮아... 왜냐, 동들의 종무이 있더라. 특히 외대의 실력 이 수준급이더라네.

이제 속자는 선수들의 약탈복이 문제 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 측은 선수들 이 모두 술에 취해 경기에 임한 것. 이무 리 박승준 전 전임이사기 집행유예로 풀 러난 것 때문에 벌받았도 해도 반칙은 안되지!

(검)

0...우리학교에 최근들어 힘겨루기 대 회가 한창이라고, 크로나를 대대적으 에 시험하기라는데, 종무는 △하고 음료수 쌓아둔 케피라 벌려 음료수 깨버려, △자 람기 깨부수고 안에 음료수 깨내 막기, 등등의 종무이 있더라. 특히 외대의 실력 이 수준급이더라네.

이제 속자는 선수들의 약탈복이 문제 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 측은 선수들 이 모두 술에 취해 경기에 임한 것. 이무 리 박승준 전 전임이사기 집행유예로 풀 러난 것 때문에 벌받았도 해도 반칙은 안되지!

(희)

악물복용

비둘기협판

이 문 별

알립니다

·수화동비리 손소라샘에서 제5기 기초 수화반을 모집합니다.
매: 9월 8일(월)부터 매주 화 · 목요일 늦은 5시30분~7시
곳: 인문관 208호(1208)

(손소라샘)

·2학기 복지 장학금 신청받습니다.
지급처는: 학부보 거주지, 세내세, 소득정보 및 생사여부 특별검수: 생활보호 대상자, 직계가족임인, 대야생 일제, 재해.

지급액: 60만원(예정)
대상자 발표: 9월 10일(목) 오후로 예정

접수기간: 9월2일(수)~8일(화) 늦은 6시까지
학생복지위원회
문의: 학생복지위원회 961-4447

(학생복지위원회)

·사립대 교육자료실에서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지킴이를 찾습니다.
대상은 사대학우이고 업무는 자료실관리, 도서관출 및 반납업무, 자료수집관리입니다.
특전으로 인원은 4~5명정도이고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모집기간: 9월 11일(금)까지

(사대학우회)

·강동여학교를 모집합니다. 머리에 든 자식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과 용기를 가지고 치열한 노동의 현장에서 땀 흘리고 배움의 꿈을 이루어가는 자화들과 함께 하십시오...
과정: 중 · 고등과정
곳: 천호역에서 10분거리
문의: 489-5911

(강동여학)

왕 산 골

알립니다

·동양대학교 학생부 2개 있습니다.
단 여학생만 가능합니다.
방식은 상담 후 결정합니다.
문의: 7시 이후로 34-5925 034766-9977

·「성경과 과학」 드디어 동아리보 등록이 되었습니다.
관심있는 분은 학생회관 406호로 오세요.

(성경과 과학)

·「외대만을 위한 찬양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매: 9월1일(수) 늦은 5시
곳: 자전대 강당

비둘기 협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왕산 기자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장 2층 961-4183, 4152, 4466
왕산 학생기자실 학생회장 2층 (0335)30-4112

기행문 - 통일 기행을 다녀와서

철의 삼각지에서 느낀 '조국은 하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던 값진 하루

지난 7월 26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에서 주최한 통일기행을 다녀왔다. 처음 참여하는 기행에 통일기행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 나섰다.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따라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강변역에 모였다. 우리는 전국연합측에서 지령해 준 버스를 타고 철원으로 출발하였다.

철원에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비로소 통일기행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또한 함께 탑승하신 장기수선생님분들과 민가철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동안 나 자신이 얼마나 통일에 대하여 무관심했는지 깨닫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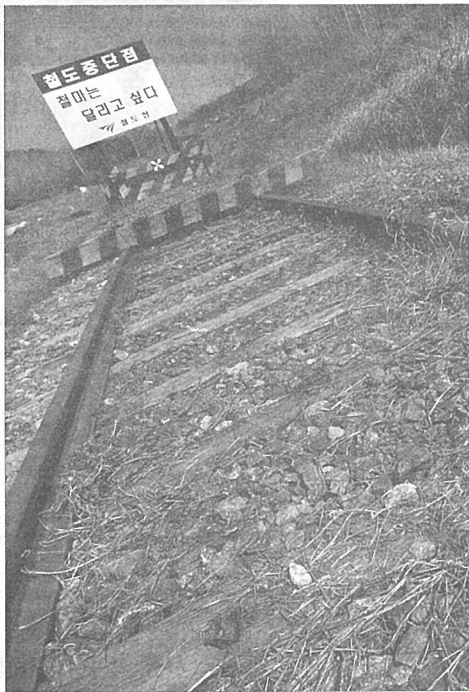
정오가 되어서야 우리는 남과 북이 함께 만들었다는 승일교를 지나 고석정에 도착하였다. 고석정은 철원팔경 중 하나이며, 조선시대 의적으로 불린 임궽정의 활동 근거지라고 알려진 곳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민통선 출입신고와 점심식사를 마친 후 최전방에 위치한 철의 삼각 정장대로 출발하였다.

심양현 관아지대인 남방 한계선에 있는데 1968년에 지어진 철의 삼각 정장대에서는 오른쪽으로는 관강이, 왼쪽 멀리에는 백마고개가 보인다. 이 정장대에서 인내원의 설명을 들으며 북방 땅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지척에 두드러질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느껴졌다.

정장대 관람을 마친 후 우리는 왼쪽 마당 끝에 위치한 월경역으로 갔다. 달우물이라는 아름다운 연못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세워진 철로와 46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심하게 부식되어 이제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한, 열차의 전차들만이 남아있다. 한때는 폐나 번화했었을 것 같은 월경역에는 이제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과 적막만이 남아 그곳을 지키고 있었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철마가 다시 금강산을 향해 달릴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는 남은 여정을 위해 발걸음을 돌렸다.

옛 노동당사를 마지막으로 둘러본 후 우리는 다시 고석정으로 돌아가 전국연합에서 주최한 '연마당' 행사에 참여하였다. 꽃차, 회향, 금강, 산비탈 등의 공연과 여러 행사들을 통해 참가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통일을 열망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번 통일기행은 정말 나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직접적으로 분단의 아픔을 겪지 못한 탓에 통일의 당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내 자신을 반성하고, 또한 통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며 조국의 분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게 되었다. 아직도 장기수 선생님과 함께 민가철 어머니들이 말씀하시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분들의 오랜 투쟁의 과정, 또 그로 인해 겪어야 했던 고통들, 말씀 중간중간 울먹이던 모습들...



너무나도 힘들었던, 또한 너무나도 많은 것을 버려야 했고, 일을 수박에 없었던 삶이었지만 그분들은 하나된 조국을 위해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싸워오신 것이다.

너무나도 힘들었던, 또한 너무나도 많은 것을 버려야 했고, 일을 수박에 없었던 삶이었지만 그분들은 하나된 조국을 위해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싸워오신 것이다. 정말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었던 값진 하루였다. 마지막으로 통일은 바로 우리들이 이루어야 할 꿈이며, 많은 사람들이 작은 실천이라도 함께 노력해나간다면 하루빨리 하나된 조국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부족하나마 이 글을 마칠까 한다.

한혜수
(서양·이태리 1)



사진
수필

8월 말 어느날 서둘러온 가을 빛을 받으며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학교 곳곳을 다들고 기우는 직한 이치에... 아주머니들을 뵈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먼저 개강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고서야 '개강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지난 학기 재단투쟁에서 그들은 분명 외대의 주인이었듯이 개강준비에 분주한 그들의 모습 외대 주인의 모습입니다.
(임경희 기자)

서평 - 스페인의 유대인들

세파르딕 유대인의 자부심

스페인문화의 기원을 알려주는 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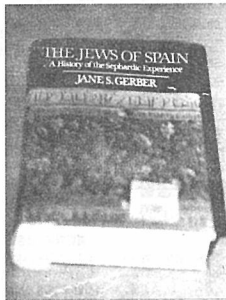
오늘날 세계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의 파워를 느끼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고 한다. 특히, 미국의 정치, 경제에 유대인의 입김이란 실로 어마어마하다.

또한 미국에서 내로라하는 대학들은 거의 어김없이 유대인들의 도움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받고 있다. 실로 그들의 능력은 한계를 모르는 것 같다.

전세계에 퍼져있는 유대인 커뮤니티 중에서 스페인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다 추방된 스페인계 유대인들은 여러가지 점에서 다른 유대계들과 구별된다. 이들은 다른 유대계와는 달리 과거지향적인 성향이 뚜렷하다. 아직도 그들이 사용하는 스페인어는 스페인어로 judéo-español(후데오 에스파냐)이라고 불리며 중세 스페인이 발달시켜 아주 중요한 자료로 쓰인다. 세파르딕(Sephardic)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그 파란만장한 유대역사의 큰 맥을 이루고 있다. 신대륙에 제일 먼저 정착한 사람들도 바로 이 세파르딕 유대인들이며 그들은 또한 미국(주로 동부)에 최고한 기반을 만들어 놓아 나중에 구리코로부터 수많은 현재들이 미국에 정착할 수 있게 하였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아무도 세파르딕 유대인들의 독특한 문화 유산과 관계를 수 없다.

분명히 세파르딕 문명은 스페인에서 시작됐다. 그들은 그들 특유의 재능을 바탕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빨리 정권과 가까이 하여 위기를 넘겼다. 사실, 당시의 정치 권력자들을 자신도 이 이민자들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때때로 그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 사실 스페인은 명실공히 통일국가가 될 수 있도록 만든 사람도 이들 유대인들이었다. 당시 아라곤 왕국의 주인이었던 Ferdinand도 유대인이었으며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왕의 보호에도 한계가 있었고 결국은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같은 해 스페인에서 추방되면서 그들의 참난한 diaspora는 시작된다.

Jane Gerber는 현재 세파르딕 유대인 연구에



이 책은 스페인어 아랍으로부터 국토를 완전히 재탈환 한 후의 세파르딕 유대인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다.

삼두주자 중 한사람이다. 특히 미국 CUNY대학원 유대학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있으며 중세 유대인들에 대한 여러 책을 출간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세파르딕 유대인들의 문화가 독특하며, 유대 역사에 중요한 지를 밝히고 부단히 노력한다. 스페인에서 추방되기 전에 세파르딕 유대인들 가운데는 정치가, 철학자, 외교관 등 고위직에 종사한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diaspora이

후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에 대해 자부심이 대단하다.

본 책은 전부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에서는 세파르딕의 어원부터 시작하여 그들의 기원에 대해서 서술한다. 중반부에서는 세파르딕 문화의 황금세기를 거쳐 1492년 추방될 때까지 그들의 스페인 내에서의 활동에 대해서 상세히 서술한다. 추방당한 후 그들의 유랑생활은 시작되고, 유럽 내에서 나름대로 성공하지만 끝은 늘 좋지 않다.

그 중에서도 오스만 제국 내에서의 그들의 활약은 대단했다. 후반부에서는 오스만 제국의 몰락 후 미국과 중남미로 진출하고, 특히 미국에서 큰 성공을 하게 된다. 특히 이 책은 이스라엘에 다시 건설되기까지의 그들의 세상 살아가는 자세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다.

이 책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의 하나는 탈무드이다.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정신적 지주다. 이러한 시절마다 훌륭한 탈무치가 나와 그들을 인도하곤 했다. 많은 유대인들은 그에게 다닌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의 선물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Gerber도 그 중에 한 사람인 듯 하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구약성서에 바로 이 세파르딕 유대인에 대한 예언이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스페인어 아랍으로부터 국토를 완전히 재탈환한 후의 세파르딕 유대인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다. 이 책은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스페인 문화의 기원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안내서이다. 또한 부록에는 전세계에 퍼져있는 세파르딕 유대인들의 숫자를 나라별로 1990년대까지 정리해 놓았다. 또 더 연구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이 분야에 대한 참고 문헌들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 놓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중세유럽에서 연구나 중세스페인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이창수
(서양·이태리 2)

“나도 외대학보
기자 하고싶다”

외대학보
수습기자 지원서

이름 : 고원하
나이 : 18살
학번 : 0335-30-4112
소속 : 학생회보
기자직을기

수습기자 지원서는 학생회보 2층 학보사에서 받아가세요

모집대상 : 98학번내외기 모집기간 : 9월 23일(수)까지 모집전일 : 간단한 논문 및 면접
모집부서 : 사회부·대학부·문화부·사정부·광고부·한화부·학술부
문의 : 학생회보 2층 학보사 서울961-4152·4466 용인 0335-30-4112·4580